

중국 서남부(청두, 충칭) 지역 식품시장 특성 및 수출유망품목

자료원 : 베이징aT센터 자체 작성

3. 서북지역 	□ 행정구역(성도) : 신강위구르자치구(우루무치), 섬서성(서안), 청해성(시닝), 영하회족자치구(은천), 감숙(난주) □ 면적 : 신강위구르자치구(166만km²), 섬서성(20.6만km²), 청해성(72.2만km²), 영하회족자치구(6.6만km²), 감숙성(45.4만km²) □ 인구 : 신강위구르자치구(2,181만명), 섬서성(3,732만명), 청해성(562만명), 영하회족자치구(630만명), 감숙성(2,557만명) □ 1인당 GDP : 신강위구르자치구(3,669\$), 섬서성(3,956\$), 청해성(3,545\$), 영하회족자치구(3,851\$), 감숙성(2,368\$)
---	--

□ 식품 소비시장 특성

- 서북지역은 중국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식품시장 규모가 작고 마트, 백화점 등 유통채널의 발달 또한 부진
 - 서북지역 중심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기초 인프라 부족, 빈곤층 밀집 등의 문제가 있음 (소득수준이 연안의 1/3 ~ 1/4 수준에 불과)
 - * 최근 중국정부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섬서성-감숙성-영하회족자치구 발전계획 발표
- 위구르족, 회족(이슬람교) 등 소수민족 거주지가 많아 지역별 식문화, 식품 소비시장 특성에도 차이가 많음
 - 전반적으로 낙후된 환경, 열악한 기후 등으로 식문화 발달이 부진하고, 종교의 영향으로 양고기 소비비중이 높음 (돈육, 수산물 소비는 적음)
- 소득수준이 낮아 식품 구매 시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며, 물류, 경제상황 등의 문제로 자국산 소비가 대부분
 - 수입식품 입점 비중 및 구매여력이 낮은 편이며, 수입산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유통채널 또한 각 성별 중심도시(성도)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
 - 또한 식품 브랜드가 구매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

□ 한국 농식품 유통·소비현황

- 한국식품의 직접 수입은 없으며, 각 성별 중심도시(성도) 주요 유통매장, 고급 백화점 일부에서만 유통이 되고 있음
 - 연안 지역 한국식품 수입상이 현지 경소상을 통해 공급·유통되며 한국식품이 입점 되어 판매될 수 있는 지역, 유통매장이 제한적
- 한국산 입점 품목은 유자차, 음료, 과자류, 면류 등 상온포장제품 위주이며, 연안 대도시와 비교해 매출규모는 매우 낮은 편임
 - 1선 도시 등에서 인기를 끈 품목들이 최근 입점 및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

□ 향후 유망품목

- 과즙음료
 - 청해성을 제외하고 물이 부족하고 기후가 건조해 갈증해소를 위한 음료소비 확대
 - 중국 국토면적의 약 1/3을 차지하나, 수자원은 6%에 비중이 불과(사막비중 높음)
 - 한국산 과즙음료는 과일 알갱이가 씹히는 새로운 식감(과육 함유)과 무색소 음료로 맛과 기능성을 보유한 제품으로 인식
 - 또한 음료는 가격대가 다른 제품에 비해 낮아 소득수준이 낮은 서북지역에 적합
 - 한국산 과즙음료 캔(250ml 내외)는 5~10위엔 사이
- 유자차
 - 한국산 유자차의 경우 1선 도시, 연안 지역 등에서는 입점 브랜드가 많아 경쟁이 심하나 서북지역의 경우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음
 - 이에 한국산 유자차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,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음
- 조미김
 -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수산가공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익숙지 않으나 최근 한국산 조미김을 간식용(스낵)으로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
- 과자류
 - 수입제품 중 가격대가 낮고 유통기한, 물류에 문제가 크지 않으며, 현지인의 입맛에 비교적 잘 맞는 한국산 과자류의 소비증가
 -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으나 유럽산, 미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음